



남원 드림스타트, 11일부터 가족 행복 치팅데이 운

남원시 드림스타트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취약 계층 아동 가정의 화목한 시간 지원을 위해 오는 5월 11일부터 '가족 행복 치팅데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마트 남원점의 전액 후원(100만원 상당)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 중 36가정에 특별한 간식 꾸러미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를 후원한 이마트 남원점은 지난 2017년 드림스타트와 첫 협약을 맺은 이래 10년째 꾸준히 후원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사회 아동과 가족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귀감이 되고 있다.

이마트 관계자는 "남원 지역의 아이들이 기뻐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장수경찰, 교통사고 인명구조 유공자 감사장 수여

장수경찰서(서장 황재현)는 8일 오전 경찰서장 집무실에서, 지난 달 장수군 장계면 인근 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전복 사고 현장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운전자를 구조한 권00 등 2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 감사장 수여의 주인공인 권00 일행은 지난달 장계면 소재지 도로를 주행하던 중, 차량 전복 사고를 목격했다. 이들은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부상을 입은 운전자를 안전하게 구조했으며, 112와 119에 신고해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뤄지도록 돕는 등 생명 보호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황재현 경찰서장은 "위험한 상황이 있음에도 생명을 구하기 위해 나선 용기 있는 행동에 깊은 존경과 감사사를 드리며, 장수경찰 또한 군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남원소방서, 공사현장 안전컨설팅 실시

남원소방서는 지난 8일, 조산동의 건축 공사 현장에서 불철 화재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불철 기간 공사 현장에서 용접·용단 등 화기 취급작업 증가에 따른 화재취약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건설관계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 내용은 △용접·용단 작업 시 화재예방 안전수칙 확인 △임시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점검 △가연물 적치 여부 및 피난통로 확보 상태 확인 △공사 현장 화재 취약요인 사전 제거 등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기안전공사, 홀몸 어르신 '시니어 노래교실' 운영

가정의 달 맞아, 전북지역 어르신 160명 초청... 문화체험·전기안전 교육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남화영)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홀몸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문화행사를 마련했다.

전기안전공사는 지역 어르신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 속 전기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시니어 노래교실'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문화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 어르신들에게 노래와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해 활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기획됐다.

노래교실은 오는 5월 7일부터 2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운영되며, 전북지역 홀몸 어르신 160명을 공사 본사로 초청해 진행된다. 행사는 캐네이션 및 여름 이불 전달식을 시작으로 강

민영 강사와 함께하는 행복 노래교실, 미리내카페 소풍 시간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특히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공사 내 소통홀과 카페 공간을 개방해 어르신들이 함께 어울리며 봄나들이를 즐길 수 있는 화합의 장으로 운영돼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서는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전기안전 수칙도 함께 안내됐다.

공사는 이를 통해 전기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도 힘쓰는 방침이다.

남화영 사장은 "가정의 달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공사장에서 즐겁고 뜻깊은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문화·안전·상생을 이루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전주파티마신협, 6년째 이어지는 '어부바 도시락 나눔' 실천

아동생활시설·지역아동센터에 도시락 150개 전달

전주파티마신협은 지난 7일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임직원과 홍보봉사단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가정의 달 '어부바 도시락(樂)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 가정의 달을 맞아 지역 아동들에게 따뜻한 한 끼와 즐거운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주파티마신협이 6년째 이어오고 있는 대표 사회공헌활동이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파티마신협 임직원 10여 명과 홍보봉사단 20명이 참여해 직접 김밥과 샌드위치를 만들고 과자 선물세트를 함께 구성해 도시락 150개를 제작했다. 완성된 도시락은 선너머종합사회복지관을 비롯해 지역 아동생활시설과 지역아동센터 등에 전달됐다.

전주파티마신협은 지역사회 아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나눔 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지난 2020년부터는 완



산구청과 협력해 '어부바 간식꾸러미 박스 지원사업'을 이어오며 정기적인 물품 지원을 통해 아동들의 생활 안정을 돕고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한 '신협 어부바 멘토링'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 아동들에게 실질적 도움과 공동체의 온정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오상근 기자



부안계화면지사협, 가정의달 맞이 행복꾸러미 전달

부안군 계화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8일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에 행복을 배달합니다'와 '웃음 가득 아동 행복꾸러미' 전달 해 지역사회에 훈훈한 온기를 전했다고 밝혔다.

이번 나눔은 저소득 취약계층과 아동들에게 따뜻한 관심을 전하고자 마련해 반찬 5종과 캐네이션을 준비해 관내 저소득층 30가구에 직접 전달했다. 저소득층 아동 10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간식 꾸러미를 지원했다.

김정 민간위원장은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외롭지 않고 따뜻한 가정의 달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위원들이 정성을 다해 꾸러미를 준비했다.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부안행안면지사협, 취약계층어르신 선물꾸러미 전달

부안군 행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은진, 김홍우)는 지난 7일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50명을 대상으로 캐네이션 꽃바구니와 함께 맞춤형 선물꾸러미 전달했다.

이번 사업은 가정의달을 맞아 경제적·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부를 살피고,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추진됐다.

협의체 위원들은 각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에게 직접 캐네이션 꽃바구니와 선물꾸러미를 전달하고, 건강 상태와 생활 불편사항 등을 확인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한편, 행안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은진, 민간위원장 김홍우)는 지역 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다양한 특화사업을 통해 이웃 돌봄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부안=김석진기자

남원노암동, 파티플래너가 되어드립니다 사업 진행

남원시 노암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진중훈)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8일, 관내 93세 어르신 댁을 찾아 '파티플래너가 되어드립니다' 사업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행정복지센터가 협력해 추진하는 맞춤형 복지사업으로,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시는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마련되었다. 이날 일일 파티플래너로 나선 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어르신 댁을 직접 방문해 정성껏 준비한 생신상을 차려드리고, 축하 선물과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가족의 빈자리를 채우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남원=김기두 기자

Advertisement for the Gwansan Custom House.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the historic building and text in Korean. The text includes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of Jeollabuk-do),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Symbol of Exploitation during Japanese Colonial Rule), and '구 군산세관 본관' (Former Gwansan Custom House Main Building). It also mentions '전주매일 캠페인' (Jeonju Maeil Campaign).